

안판관 조상본풀이

이번에는 선흘 안칩잇 조상 본풀입니다.

안씨 하르바님넨, 저 안동 7을 안동서, 소문에 들으난 우리 제주도 백성들 다 굶어 죽게 뒀엿젠 허난, 무곡을 전배독선((全船獨船) 시꺼앗언 제주 절도로 오는 게, 애월 듬북 석은개 알로 들어오란, 이젠,

“큰성은 어딜로 가쿠겐?”

허난,

“난 과납¹⁾으로 들어가마.”

“셋성은 어딜로 가쿠과?”

허난,

“난 더력²⁾으로 가마.”

“게난, 아신 어딜로 갈티?”

허난,

“난, 선흘³⁾로 가쿠다.”

허연. 삼형제가 각각이 다 빼어진거라⁴⁾. 경 허영 가신디, 선흘 안칩잇 하르바님은 주인을 못인 게 현칩일 간 주인을 못인 거라. 거난 현칩이 주인을 못언 살명 사농만 허레 덩긴 거주. 사농허레 덩기명 살았이난,

흐를 날은 성님네 돌이가

“아이고, 우리 아시, 선흘 간 어떻 살았인고 혼 번 좃양이나 가 보저.”

허연. 이젠, 성제가 좃아 앓언, 아시 좃안 간 거 아니. 간 보난, 사농허레 간 엇인 거라. 경 헤연 헤가 지언 헤가난 오랏인디,

“어떻 살았디엔?”

허난,

“난, 사농허명⁵⁾ 살았우다.”

허난,

“게문, 널랑 나 사농허는 것도 구경도 허고, 혼디 글읍서.”

허연. 아, 산에 가신디, 그날따라 사농은 못허고 이젠, 어둑어가난⁶⁾ 굴 쏘곶에 간 누웠인디, 아침인 헤가 빠쪽허게 헤가 터 와가난 아이, 베끼디 영 나온 게 무신 게 뻥쩍 허는 거라. 보난 고레방석만인 허게 빙빙 사려진 천구아구 데맹이⁷⁾라. 겐 영 보 난, 귀도 돌고, 겐 귀 돌은 베염이주 말하자면, 겐 잇이난

“아이고, 이거 어떻허믄 좋콘.”

1) 과납: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옛 지명.

2) 더력: 제주시 애월읍 상·하가리 옛 지명.

3) 선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 빼어진거라: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지다.

5) 사농허명: 사냥하면서.

6) 어둑어가난: 어두워가니.

7) 천구아구 데맹이: 천구(天口) 아가리 대망(大蟒). 곧 아가리가 하늘에 붙을 정도로 큰 구렁이

허연. 이제 큰성이 약도리⁸⁾를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이 약도리더레 들어옵서.”

허난, 꼼짝도 안허여. 이젠,

“셋성이 나 약도리로 들어옵센.”

허난, 아이 탁탁 털멍 꼼짝도 안허여. 죽은아시가 약도리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나 약도리에 들어옵서.”

허난, 그땐 이제 기어왔던 그 약도리에 들어오는 거라. 슬슬허게 들어오난, 이젠 지연 일어사젠 허난 무거원 일어살 수가 이서.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몸천을 가뻑게 험서.”

허난, 영 전 일어사난 거뿐헌거라. 이젠 지연 완, 저 선흘 오라네 베남터⁹⁾에 모셔두연. 그땐 사농허레 간 게 사농이 어떻사 잘 뻬인지, 그냥 이레도 팡 저레도 팡 막 사농이 잘 뻬 거라. 겐 성님넨, 아시 사농허영 잘 사는 거 뵙 가불고,

현칩이선 하도 착실허고 암전허게 사난, 즈운 사월¹⁰⁾ 헌거라. 즈운사월 허난, 안씨 하르바님네는 삼년 일동 부군(富君)¹¹⁾ 조상으로 큰긱허고, 죽은긱허고. 피 그르¹²⁾에 피가 나고, 비어불어도, 씨 안 뿌려도, 조 그르에 그냥 조가 나고, 보리 그르에 보리가 나고, 경 멧 년씩 썰 안 뿌려도 농사를 행 먹는 거라. 경 하도 춤 잘 뻬언, 경 허연 무곡을 곱간에 데며 노난¹³⁾,

어전(御殿)에는, 서울에는 막 송년 들던 백성들 죽을 스경(死境) 뻬난, 영물 김동지 영감, 방에 아흙, 7레¹⁴⁾ 아흙허영 잘 산덴 허난, 김동지 영감 7라,

“무곡을 바치렌.”

허난,

“난 경 혈 자신이 없습네다.”

“게난, 누게를 허닌?”

허난, 이젠, 안씨 하르바님을, 선흘 안뎁을 7르친거라. 게난 육지서 주추스령이 느려산거주. 주추스령에 뉘(升)지기 섬지기¹⁵⁾ 말지기 다 느려산 안칩이 무곡 바치렌 허난, 하르바님은 막 걱정을 헌거라.

“아이고, 무곡 어떻허영, 삼백 석을 어떻허영 바치린.”

막 걱정허는디, 할마님이 꺾가 좋아신 7라, 할마님이 꺾가 존 생이라.

“아이고, 경 즈들 게¹⁶⁾ 잇수까? 나신디 멧경 내뵙센.”

게난, 우터레, 우이 가맹이¹⁷⁾덜은 열두 말씩을 놓고, 알더렌 가가민 삼백 석이난,

8) 약도리: 노끈 따위로 그물을 맺어 둘레에 고를 대고 긴 끈을 단 물건.

9) 베남터: 선흘리의 지명.

10) 즈운 사월: 신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자원해서 얻은 사위.

11) 부군(富君): 뱀을 일컫는 말.

12) 그르: 작물을 수확하고 난 빈 밭.

13) 데며 노난: 쌓아 노니.

14) 7레: 멧돌.

15) 섬지기: 곡식을 섬(石)으로 지키는 신.

16) 즈들 게: 걱정할 것이.

17) 가맹이: 가마니.

아래 가맹이덜은 가 가민, 열 말도 놓앙 혼 가맹이 으덥 말도 놓앙, 혼 가맹이 아홉 말도 놓앙 혼 가맹이 허멍, 문딱 체와분 거 아니. 경 허난, 이제, 주추스령 완 문딱 뉘로 뉘연에 허난, 우이 가맹이덜은 열두 말이 딱딱 맞앗주게. 게난, 그걸 다 경 뉘로 뉘 수가 엇이난 말제랑 알더레 가가난 무조건 다 시끄렌 허난, 삼백석을 문딱 시끄 서울 임금님안티 가난, 임금님이 안씨 하르방허고 현씨 할망 불러들이렌,

경 허연 거 시끄 갈 때는 영물 김동지 영감네 베혜영 상선 아홉 중선 아홉 하선 아홉허연 허난, 그 베로 다 시끄가고, 경 혜연 불러오렌 허난, 서울 가난,

“땅 혼 착을 갖겠느냐? 물 혼 착을 갖겠느냐?”

해도,

“난 땅 혼 착도 물 혼 착도 마우덴.”

혜연.

“날랑 판관 베슬이나 내려와 줘서.”

허연. 판관 베슬 내려와 주고, 할마님은 부인, 부인, 정부인 숙부인 베슬을 내려오 난, 삼년 일동 큰곳 죽은곳 허단, 이젠, 메느린 허는디 저, 삼양, 화북 이칩이 장계를 갖어 아들이, 게난 그디서 안씨 하르바님허고, 안판관 하르바님허고 현씨 할마님은 죽 어부난,

이젠 이칩이, 그 할망이 큰곳 죽은곳을 허단, 저 고래 의원¹⁸⁾을 빌언 혼 해 큰곳을 허연. 경 허연, 굿 무찬 간, 가수리¹⁹⁾ 허레 가신디, 가수리 허연 안체폴 지난 막 무거운 거라. 경 막 무거와도 그냥 지언 가는디, ‘구으니무를’ 올라사난 중이 대스(大師)가 속닥속닥 앓앙 즐았어. 게난 가수리 헨 받아오던 돌레떡에 시리떡에 주어네, 이제 시 장기 멀립센 주고, 보난, 그 안체포²⁰⁾에 부군(富君) 한집이 쫓안 와 분거라. 고래 의원 그 안체포에, 겐 쫓안 와 불고 허난, 스님안티 그 떡 멕이난 스님 허는 말이,

“나도 놈이 거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난, 나도 당신님 이루제²¹⁾ 살 당 문을 디나 하나 보아드리겠습니다.”

허연. 한로영산으로부터 물줄기를 다 불환 보난, 저 용무루, 용두암에 그 디 산 터 를 봐주멍

“당신 이루제 죽영 이 디 산을 쓰면 심방 대는 끊어지고, 대정원 정의원 뉘, 다 높은 사름이 뉘켤.”

아닌게 아니라, 고래 의원 살단살단 죽으난, 그디 간 묻으난, 아들은 대정원이여 정의원이여 다 뉘엿젠 말이 잇습네다.

18) 고래 의원: 고씨 큰심방.

19) 가수리: 큰곳 때의 제차(祭次) 이름. 도진 제차(祭次)에서 모든 신(神)들을 둘러보낸 후, 마지막으로 그 신들을 따라온 하위잡신(下位雜神)들을 대접하여 보내는 제차(祭次)이다.

20) 안체포: 심방이 굿을 하러 갈 때 멩두(신갈, 산판, 요령)를 넣고 가고, 돌아올 때는 멩두와 쌀을 담아 오는 자루.

21) 이루제: 이후에.